

序 文

東燮은 삼가살피건대 『己未譜序文』에 蓋其爲法必謹乎序昭穆明本支而於其所自出允致詳焉不然亦奚以譜爲』라는 句節이 있습니다.

略譯하여 말하면 族譜를 編纂하는法은 반드시 昭穆의序次를 바로잡고 本孫과支孫을 分明히 하되 그根據를 더욱 仔細히 하여야한다 不然이면 또한 어찌 族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金海金氏는 駕洛國始祖首露王의 後裔로 新羅、高麗、朝鮮을 거쳐 至今에 이르렀으니 그世代가 너무 오래되고 멀어서 中世代의 浸逸됨은 史的文獻이 또한 不足한緣由입니다. 그러나 高麗重臣이신 三重大匡金寧君諱牧卿그 아드님左侍中 金寧府院君諱忠簡公諱普父子分은 高麗史에 顯著합니다. 忠簡公의 아드님은 朝鮮朝에 三司副使諱到門이시요 副使公의 아드님은 戶曹摠郎諱觀이시요 摠郎公의 아드님은 左正言諱孝芬이시요 正言公의 아드님은 承文院副校理諱震孫이시니 校理公께서 戶曹參判諱永堅 橫城縣監諱永瑞、安敬公諱永貞 石城縣監諱永純아드님四兄弟分을 두셨읍니다.

우리金海金氏의族譜는 光海朝(一六〇九~一六二二)때判書公諱盡善(一五五四~一六一一)毅憲公諱禮直(一五六五~一六二三)두分께서 始成草本하시고、小姪公諱德承(一五九五~一六五八)忠靖公諱宇杭(一六四九~一七二三)께서 繼承하시다가 完成하지 못한것을 靑山公諱宇槩(一六八八~一七五〇)께서 비로소 完成하시였읍니다. 그런데

그후로 各地에서 任意로 潛刊하는 무리가있어 眞僞를 分別하기 어려웁므로 參判公宗孫諱國鉉(一七三九~一八〇六)께서 嚴正한信筆로써 己未譜三卷을 編纂하시니 實로金

海金氏의 族譜에 있어서는 初版이며 眞本입니다。그凡例에 『自七世分爲四派曰參判公派、曰橫城公派、曰安敬公派、曰石城公派』라는條項이 있는데 말하자면 校理公아 드님 四兄弟分을 參判公、橫城公、安敬公、石城公、四派로 分派한다는 뜻이며 이를 京四派라고 합니다

族譜의 第一 根幹이 되는 宗孫系統을 살펴보면 어느氏族이나 어느派를 莫論하고 本孫一系로 繼承된다는것은 事實上으로 어려운일입니다。우리四派의 經緯만 보더라도 參判公宗孫은 安敬公派에서 橫城公宗孫은 石城公派에서 石城公宗孫은 派內 작은집에서 入係되어있음은 各譜冊에 昭載되어있읍니다。이러함에도 不拘하고 甲午譜(一九五四)에 石城公宗孫을 任意로 幻弄하며 本孫云云하는이가 두집이나있어 서로訴訟까지하였고 또 龍山譜(一九七七)는 社團法人 駕洛中央宗親會長承認을 받아 修譜한다는 口實下에 石城公派는 自己本位로 宗支를 傳會하였읍니다 뿐만아니라 四派全般에도 誤謬가 不無함으로 서울에서 四派門中代表會議를 열어 僞譜對策委員會를 組織하고 龍山譜는 僞譜로指摘하는 同時에 中央宗親會長에게 그責任을 追窮하고 全國內 宗員에게 이事實을 通告한바있읍니다。中央宗親會長에게 그責任을 追窮하고 全國內 宗員에게 이事實을 通告생각컨대 修譜는 門中宗議에 依하여 發刊할것이요 宗親會定款에 族譜管掌이란條文이없으니 何等の 權利도없이 承認한다는 自体나、承認을 받는다는 行爲는 올바른 일이라고 할수없읍니다 宗孫入係가 우리 石城公派뿐만이 아닌데 오직 石城公派宗孫만 가지고 옥신각신 宗支粉爭을 惹起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悚懼스럽고 안타까운마음 금할수 없읍니다。옛말에 『人必自侮而後人侮之』라는 格言이 있읍니다 우리石城公派가 그리 繁昌하지 못하고 서로 團結이 不足하였다는 因果로 볼수밖에 없으니 누

구를 怨望하며 닳하리요?

이번 派譜를 契機로 하여 여러 일가의 無窮한 發展과 融和團結하기를 祈願하였으며
으로 이번 譜事에 誠力을 다해 주신 族大父 鍾萬氏를 비롯하여 任員諸位에게 格別한 敬
意를 表하옵고 삼가 序文에 代하는바입니다

駕洛紀元一九三八年(一九七九)歲次 己未孟夏上浣

石城公十八代宗孫 東燮 監手謹序

後 叙

터득하기 어려운 漢文古典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한창인 전환기를 즈음하여, 한글 보첩을 간행하는 일은, 참으로 새로운 시대의 감각에 적절한 사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옛날의 漢文을 그대로 계속한다면, 비록 古典을 지키는 뜻은 될지언정, 아마도 보람을 느끼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丁巳年(一九七七) 九月, 金海 崇善殿 秋享大祭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멀리 서울에서 온 益洙甫를 만났더니, 이번에 간행하는 『中祖 安敬公派世譜首·總編』의 번역을 청탁하므로, 나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하고 여러번 사양했으나 관철되지 않았읍니다.

그후 번역에 필요한 基本文獻을 선택하여 보았으나, 실로 용이하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肅宗十二年(一六八六)의 丙寅譜를 비롯하여, 英祖三十年(一七五四)의 甲戌譜와, 正祖二十三年(一七九九)의 己巳譜와, 純祖二年(一八〇二)의 壬戌譜 및 高宗六年(一八六九)의 己巳譜 上編은 너무나 간략하고 심지어는 『名載史傳』이란 귀절이 여러군데 보이는가 하면, 그 다음 甲寅年(一九一四·京城本) 및 甲子年(一九二四·金山齋本)의 大同世譜 總編은 外實內虛하여, 歷史의 사실과 전주어 보진데, 너무나 어긋난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와 三國史記의 興武王傳을 基本史料로 삼기에 이르렀읍니다.

駕洛國記는 高麗 文宗三十年(一〇七六)에, 金官(지금金海) 知州事가 지은 것이니, 실로 三國史記에 앞서기 六十九年인 古典文獻입니다. 그러나 이 駕洛國記를 지은이의 姓名이 전하지 않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記事가운데 『芬苾孝祀、於是乎、在於我』 곧 『향기로운 제사는 이제야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귀절이 있는 바, 여기에서 일컬은 『我』라는 글자는 그 撰者가 駕洛의 後孫임을 분명히 立證한 것이며, 近者에 와서 혹은 金良鎰의 지은 글이라는 말도 있으나, 신빙되지 않읍니다.

그로부터 약 二百年 후인 忠烈王七年(一一八一) 경에 一然國師가 이 駕洛國記를 四四六四字로 要略해서 三國遺事에 실고는 거기에 八十三字의 註書를 붙쳐서 전하게 하였고, 다시 三三〇餘年 후인 朝鮮 中宗七年(明나라 武宗正德七年.. 一五二二)에 이르러, 당시 慶州府尹 李繼福이 府庫에 所藏된 三國遺事를 改刊하려 했었으나, 거의 殘缺되어 겨우 남은 것은 一行에 四·五字정도 이었는데 마침 星州牧使 權輅가 구하여 보내준 完本에 의하여 重刊하게 되었으니 바로『正德本 三國遺事』(寶物第四一九號)입니다. 그러나 駕洛國記 가운데는 무릇 三十餘字의 誤字가 있으니 이는 아마도 星州本の 殘缺에 인한 것일 듯합니다.

이 밖에 또 二本의 駕洛國記가 전하는데 그 하나는 眉叟記言에 실려진 駕洛國記로써 仁祖二十四年(一六四七)경에 許穆의 지은 것이니 全文 七三二字에 小註十五字이요 다른 하나는 東國歷代總目 중에 있는 駕洛國記로써 肅宗三十一年(一

七〇一)에 洪萬宗의 지은 것이니 全文 六七〇餘字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興武王傳은 三國史記의 列傳本과 또 興武王演義가 전합니다. 列傳本은 三國史記를 撰修한 高麗 太師인 金富軾이 말하기를 『庾信玄孫 新羅執事郎長清作 行錄十卷 行於世 頗多釀辭 故刪落之 取其可書者 爲之傳』 곧 庾信公의 玄孫인 新羅 執事郎 長清께서 지은 行錄十卷을 간추려 傳記를 삼는다고 했었습니다.

이 行錄十卷 原本은 이미 전하지 않은게 오래이나 대개 新羅 惠恭王十五年(七七九)까지의 記事가 실려져 있는가 하면 또 長清의 職脚인 執事郎은 그 원래가 執事史이던 것을 景德王十八年(七五九)에 執事郎으로 改稱했다가 다만十八年間을 사용한 후인 惠恭王十二年(七七六)에 이르러 다시 執事史로 還元했으니 行錄十卷의 著作된 年代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후 약三七〇年인 高麗 仁宗二十三年(一一四五)에 三國史記를 지으면서 이 行錄十卷을 原文 八二五八字와 註書 五十字로 간추려서 金庾信傳의 上·中·下卷을 만들은 것이며, 또 朝鮮 太祖三年(一三九四)에 당시 慶州府使 金居斗의 힘으로 이를 重刊했으니, 지금 寶物 第四一八號로 전하는데 現存 우리나라 歷史文獻 中の 最古本으로 손꼽는 바입니다.

그런데 興武王演義는 一名 龍華先生傳이라 일컫기도 하며, 高宗二十四年(一八八

七)에 編成된 이후로 興武王實記 角干先生實記 興武王三韓傳 開國公實紀 등으로 改題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三國史記 列傳本은 一千二百年 전의 行錄十卷을 要約한 古典인데 비하여, 興武王演義本은 九十年 전에 中國 演義小說을 모방한 것으로서, 正史의 내용과 年代에 어긋남이 너무나 許多함을 指摘하게 되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三國遺事의 駕落國記와 三國史記 新羅本紀 中的 加耶關係記事를 뽑아 모아서 駕落史를 集成하고, 역시 三國事記 金庾信傳과 新羅本記·三國遺事·東國通鑑·東國輿地勝覽 中的 關係文獻을 補完하여 興武王傳을 編次하고, 다음 高麗史·朝鮮王朝實錄·增補文獻備考 또는 先世碑銘·歷代舊譜·古代金石文을 敢會하여, 삼가히 首·總編을 엮어낸 바입니다.

끝으로 病餘의 몸인 데다가, 平素 漢文古典의 理解力도 능숙하지 못하며, 한글의 마춤법도 서투르서, 완벽한 번역을 기하지 못한 점도 많을 터이나, 모름지기 原書의 大意를 따라서 小節에 구애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編輯의 경위를 밝히는 바입니다.

駕落紀元一九三七年(서기一九七八年) 戊午十一月二十八日

後孫 沅泰 謹識

金海金氏世譜序

譜、曷爲作。夫族始分于一人之身、親盡、情盡、遂至路人、此、蘇明允之慨然於斯、而譜之所由作也。蓋其爲法、必謹乎序昭穆、明本支、而於其所自出、尤致詳焉、不然、亦奚以譜爲。繫我金氏、鼻于駕洛、國絕、子孫仍顯于羅、歷勝國、入本朝、世襲簪纓、數千載。昔、涵虛亭、撰先祖校理公碑云、東韓世族、蓋多姓金、金海之金、獨高古今、匪溢辭也。第緣世代久遠、文獻無徵、舊譜、逸而不傳、粵昔光海朝、我六代祖贈判書公、與族祖毅憲公、始成草本、五代祖少痊公、曾王考忠靖公、繼其事而未竟、洎族祖青山公、慨然自任、窮年費精、迄有定本而不幸、甲戌入刊、詐僞冒眞、壞亂統緒、吾宗、遂却而不受、仍謀更梓、而族單力綿、閱歲未就、近聞甲戌之後、繼有辛卯、丙、丁譜之潛印、甚至有往年天安板、今年廣德寺之盜刊、其徒寔繁、不塞不止、始則起於全、慶、今則殆遍乎八域矣、槩其混雜、無派無之。我先祖參判公、只有三弟一子、傍祖參奉、奉事公、俱無後嗣、而冒係相屬、舉一而可推其餘矣。後生少年、不辨眞假、間或、求嗣於其中、噫人家之亂倫、孰大於是、而星霜寢邈、苗莠愈亂、不于今正之、後世誰有知者。國鉉、是用大惧、發文收單、黜其冒係、刪其無稽、取史乘、碑誌、先世文獻之可徵者、弁之卷首、自參判公昆季分爲四派、摠成三冊、一依青山公舊本、推其世次、訂其訛誤、是所謂述而不作、其敢曰克前人圖事、繼自今、後嗣諸宗、只憑此譜、而踵之、庶乎無大過矣。苟或傳會傳聞、妄有添入、復襲近日之爲、則豈余修譜之意也。若夫推原本始、敦行

親睦、實在乎其人、無待余言、最是僞譜之患、忝其所自出者大、茲余不得不勸勸累言、以戒我子孫宗族云爾。

崇禎三己未、孟秋下浣

後孫 國鉉 謹序

기미보 서문

족보는 무엇을 위하여 지은 것일까? 대개 종족은 처음에 한 사람의 몸에서 갈려진 것이나, 복친(服親)이 면해지고 정리가 소원해지면, 마침내 갈 가는 행인과 같아지므로, 소명윤(蘇明允名은洵)이 이를 개탄하여, 족보를 지은 것이 그 유래이었다. 그 보법(譜法)은 반드시 소독(昭穆)과 본지(本枝:宗支)의 차례를 밝히는 데 신중하고, 그 소자출(所自出)을 더욱 소상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또한 무슨 까닭으로 족보를 짓겠느냐?

우리 김(金)씨는 가락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나라가 없어진 후에는, 자손이 이내 신라에서 현달하여, 고려조를 지내고 본조(本朝:朝鮮)에 들어왔으니, 대대로 높은 벼슬을 세승한 지, 천 수백 년이었다. 옛날 함허정(涵虛亭:大提學 洪貴達)이 지은 선조(先祖) 교리공(校理公:震孫)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 이르기를 『동국의 대성은, 대개 김씨 성이 많으나, 김해 김씨가, 유독 고금에 우뚝하다……』고 했음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대가 오래되므로 해서, 문헌의 증빙이 없어지고, 옛날 보첩은 실전 되었다.

과거 광해조(光海朝)에, 나의 六대조 증판서공(贈判書公:盡善)께서, 족조(族祖)의 헌공(毅憲公:禮直)과 함께, 처음으로 초본(草本)을 작성하셨고, 五대조 소전공(少痊

公(德承)·증왕고(曾王考) 충정공(忠靖公)·宗(宗)께서 제 속했으나 마치지 못하셨던 일을, 족조(族祖) 청산공(靑山公)·字(字)概(概)께서 개탄스럽게 여겨, 스스로 그 일을 말하여 여러 해 동안 애 쓰시어, 정본(定本)을 마치시기에 이르렀으나, 불행이 세상을 여의셨다.

그후 갑술년(一六六八)에 보첩을 간행할 때, 허위가 진본(眞本)을 가장하여, 제통을 문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종문에서는 드디어 이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시정하려고 다시 출판계획을 세웠으나, 족세(族勢)는 단조롭고 재력이 모자라서 수 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하였다.

근래에 들으니, 갑술보 이후로 계속하여 신묘년(一七七二)·병신년(一七七六) 정유년(一七七七)에 은밀한 출판이 있었고, 심지어는 왕년의 천안판(天安板)과 금년의 광덕사 도간(廣德寺盜刊)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무리는 번식할 뿐이며, 막히지도 않았고 정지되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일어나더니, 지금 전국 八도에 번지고 있다. 대개로 그 혼잡성은 우리 종중의 각 파에서 거의 없는 파가 없는 모양이다.

이를 데면, 나의 선조 참판공(參判公)·永(永)堅(堅)께서는 삼제 일자(三弟一子)이었고, 방조(傍祖) 참봉공(參奉公)·億(億)壽(壽)·봉사공(奉事公)·希(希)壽(壽)은 다 후손이 없었는데도, 그릇된 제통(冒係)이 연달아 속출했으니, 그 나머지는 가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후생소년(後生少年)이 그 진가(眞假)를 분간하지 못하고 간혹 그중에서 후사(後嗣)를 구하니 슬프다. 사람의 가문에 인륜을 문란케 하는 폐단이 이보다 중

대할 것이냐? 세월이 오래일수록 후예가 더욱 문란해질 것이니, 지금에 시정하지 않으면 후세에 그 누구가 알겠느냐?

국현(國鉉)은 이를 크게 두려워해서 통문을 발송하고 단자(單子)를 받아, 그 모계(冒係)를 축출하고 무계(無稽)함을 깎아 버리며, 국사와 가승보와 선대 비문과 문헌의 증빙될 것을 책 머리에 실고, 참판공(參判公: 永堅) 사형제분을 사파(四派)로 나누어, 모두 삼책(三冊)을 편성하였다. 한결 청산공 구본(靑山公 舊本)에 의거하여 세계(世系)를 정리하고, 그 와전(訛傳)을 정정했으니, 이는 이른바 술이부작(述而不作)、곧 『옛 것을 즐겨 그대로 전하고, 새 것을 창작하지 않을 것』으로, 감히 선대의 도모하시던 사업을 잘 마쳤을 뿐이다.

지금부터 후대를 계승할 여러 종족은 다만 이 족보를 신빙해서 계속한다면 저의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구차스러운 부회(傳會)와 전문(傳聞)과 그리고 망령된 첨가(添加)로, 다시 근일의 소위를 답습하는 일이야, 어찌 나의 수보(修譜)하는 본의겠느냐? 근원을 추구하고, 뿌리를 튼튼히하여 돈독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실로 그 사람새에 있는 바이다. 이것은 나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가장 위보(僞譜)에 대한 걱정은, 그 소자출에 힘질이 많은 이유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간곡하게 여러번 말하는 것이다. 나의 자손과 종족에게 경계하노라.

승정(崇禎) 三기미 (정조二十三年: 一七九九) 七월 하한,

후손 국현(國鉉) 근서

金海金氏大同世譜序

天子諸侯建邦立國故天子諸侯之家多以國爲姓此駕洛之金以少昊之后金官之國號而以金爲姓之淵源也 古者姓氏分而婚姻別後世姓氏合而傳統一此氏族之譜所以起而大夫之家不祖諸侯則此皇子王孫必立中祖此天經地緯萬世之定理也 夫國有譜謂之史家有史謂之譜家譜有錯則國史正之國籍有誤則家譜正之此周禮冢宰宗以族得民註曰宗繼別爲大宗收族也大宗立則先王之德不墜於萬世宗繼別爲大宗收族則本支百世親睦可叙大哉先王之德之盛其至於斯乎

昔我駕洛之建國也以皇太王太后之至德定鼎于海上創五百載卞韓之總主內則以五伽爲輔外則以卞辰軍彌甘路等國十二爲藩十七國境皆其古封也 天之歷數不可違也國之神器不可私也天與子則與子與人則與人太王十世至於衡王知天命之有在若太伯之至仁而傳位於武力王乃率太子入于伽山考終于 太王之水晶宮石堦九級陵儀若臨武力王不忍以父王之世革鼎廬陵七載諡曰讓王然後克遂天命以國易仁此衡王所以諡而諱武力則以新朝都督或史稱武力王則固以下韓繼統之國君也其不以諡者以國之將相固不以王諡之也古史左證亦可知也 謹按世譜則爲王在位七年慶州金氏璿系譜稱武力王昭載如日讓王之世子則一曰武宗一曰世宗嗚呼一片斷簡武力之王號赫然不昧於千載之下滄桑屢變天潢玉牒化爲劫灰之餘王績不泯作今日之大訓河圖則此天之所以不斬於兩王之德昭示於來世也凡爲衡王百代之臣子者無一人以讓王之至仁武力之知天暴白於天下至於諸史敢以讓王率太子妣嬪降于新羅誣斷王統胡寧斯極 昔明人

牧齋錢益謙以南唐之後裔生于建文成祖二百年之後暴兩皇之德雪兩祖三百年之遺恨使人神俾伸其痛況讓王父子之傳授懸於日月武力王之傳國昭若日星距今壹千三百年之間巷說化爲彤管新語變爲古蹟國初則利貞傳書誣罔綱常國季則燕子樓書敢誣國祚珉珞眩玉昏衢日月不可復睹於乎此雲培所以不得不考據以正之此駕洛國記之所以先成聊以雪千載不盡之痛焉讓王元子或以世宗君何哉世子者負宗廟祭祀之責爲大宗之主者也以其主祀而稱世以其封爵而稱君則羅氏之封未可知也其曰武宗者以其禪位之序次而武力之上尊謂不可無也 蓋世家譜牒皆國之史馬韓五十四國下韓十七國籍與塗山萬國之史只在天上不在人間則國史無傳豈惟駕洛而當時之籍豈無真傳諸家譜牒同異隨賸莫之反正則倫綱斃喪不焚不止可謂國有人乎家有史乎喟東方萬里之國凡爲太王之后者雖千萬人之子支皆王之身也自羅麗至于朝鮮上下三代之際爲國干城作東洋之砥柱者皆王之史也若璿源大宗則太王十子七子無傳國祚五百麟趾必昌皇子王孫無一遺系至于角干炳彼壯蹟徵我王孫則此麟獸之一角而角干以下至於曾玄世系中逸此駕洛之金雖繁昌於四海之內皆立中祖爲東方大姓之首族蓋由於先王之流澤羅麗以降簪纓震懾文武將相忠孝封君名賢血食前後繼興於各門蓋不能以盡載發源旣遠流光旣燦古家大族將沈沒而不揚則予竊懼夫麟經難再而潛刊僞牒霧塞乎八維三十六國之春秋競爭於偏霸一編春秋之魯史懼焚於一朝於是大同合譜之論自各宗門元老起及隆熙二年設宗約所于漢城三王陵事始有管攝萬派一源血脈流通則此尊祖敬宗宗權之所重也於乎此而不譜則是家而無史也譜不收族則非周官羽翼大宗之至意也 宗議乃決

告我再從氏定平公容培首其事佈告于各門設宗長總會期成此案公不幸卒世盖大同合譜之議已決於戊戌之歲暨歷十有四載宗議愈壯屢蹶而屢振此今日完璧實光前絕后之盛舉而校正將竣命余以弁首之文余雖歸老於墓庭固不敢退步於先事故雖欲記事以叙實奈無文何堅辭不獲乃盥手稽首而報之曰昔者凡有氏族者必有譜系者所以明三綱而叙昭穆於天下也故歷代以降設圖譜局實郎令以掌之選博通古今之儒知撰譜事使天下敦於倫常而貴有常尊賤有等威以繩天下反是則有罰故古之諸侯詛史曰墜命亡氏陪其國家夫以明亡氏則與失國奪爵同其罰可知也噫金氏以先王之裔蔓延于全邦者家家有牒派派刊譜大者派系冒撰小者僞書亂真倒傷倫理貽禍于國風則其罪當以陪命亡氏論而其禍蓋由於上系淵源中葉昭穆闕統貫之合璧雖一派之宗或晦亡而或顯繼以冒系之禍終之以宗支莫卞此普通之患餘可以類推蓋一氏族之譜不相管攝而被其遺禍各派將淆亂殘滅蓋多不免於失祖離宗之禍則雖以大儒知撰普事以遏其禍難以一手辦正以成信史則合天下之正論正天下之昭穆以遏其禍綱常以正此今大同合譜之正案也故幸茲各門宗長及元老諸公水陸千里跋涉關河閱歲冷館共贊是役霜露屢經克成一家之書以定一門之規此修譜者之能事備矣復何俟於余言然日月既暮刪削未遑則亦豈敢曰能盡精微可質於神明乎若夫全邦各門中凡有憾於遺珠而未及者則此必在於來世之繼贊斯譜者云

歲在闕逢攝提格

月

日曾曾孫雲培稽拜謹識

김해김씨 대동세보 서

천자와 제후는 국가를 창건한고로 나라이름으로 성을 삼았으니 가락의 김씨도 소호금관국의 금으로 성의 연원을 삼았다. 옛적에는 성과 씨를 나누어서 혼인도 분별하더니 후세에는 성과 씨를 합해서 통일하니 이것이 씨족이 생긴바요 대부는 제후를 조상으로 아니하였고 황자와 왕손이 반드시 중조를 내세웠으니 이것이 천지경위이며 만세의 정한 이치이다.

국가의 족보를 역사라하고 사가의 역사를 족보라하며 족보에 착오가 있으면 가보로써 바로잡고 국사에 착오가 있으면 가보로써 교정을하였다. 주례총재(周禮冢宰)의 종이족득민주(宗以族得民註)에 말하기를 『종제는 별달리 대종을 수족함이니 대종이 수립되면 선왕의덕이 만세에 이르고 본손과 지손이 백대에 이르도록 서로 친목을 할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선왕의 성덕이 여기까지 이르렀도다. 우리 가락의 전국도 황태왕 태후의 지극하신 덕으로 해상에 전국하사 五백년 동안 변한의 총주가 되시어 안으로는 五가야가 보필하고 밖으로는 변진 군미 감로등 十二국이 번신이되다.

천지의 운수는 어길수가 없으며 국가의 신기(神器)도 사사로 할 수 없는것이니 모두가 하늘의 뜻대로 되는것이다. 태왕의十세 형왕에 이르러서 천명이 다 됨을 깨닫고 태백(太伯)의 지인을 본받아 차자인 무력왕에게 전위하고 태자와 더불어 가야산에 들어가 태왕의 수정궁에서 고종명하시다.

석계(石階) 九층에 룡의가 엄연하니 무력왕이 부왕의 양극 하심을 참아못하여

여릉七년에 양왕이라 시호를 올린 연후에 천명에 따라서 나라로써 인을 바꾸었다 하니 이것이 바로 양왕이라고 시호한 연유이다 무력왕은 신라 도독(도총관)이 되었는데 사기에 무력왕이라고 함은 변한 제통의 국군이란 말이요 시호가 없음은 나라의 장상은 왕의 시호를 할수없다는 것이다.

구보에는 왕으로서 재위 七년이라 하였고 경주김씨 선원보에는 무력왕이라고 소상히 기재되어있다. 양왕의 세자는 무종 혹은 세종이라고 되어있다. 일편단간에 무력이란 왕호가 천년동안이나 혁연히 내려왔다. 세상이 여러번 변천되어서 천황 옥첩(황실제보)은 병화로 불타 버렸지만 그 왕적만은 전멸되지 않았으니 지금의 대훈(大訓)과 하도(河圖)가 바로 그것이다. 형왕과 무력왕의 덕은 후세까지 빛나 있으며 양왕의 지인과 무력의 지친명은 모든사기에 나타나 있으니 어찌 양왕으로 하여금 태자와 비빈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하리요, 옛적에 목재(牧齋) 전익점(全益謙)은 남당의 후예로 전문 성조二백년 뒤에 출생하여 양왕의 덕을 포양하고 양조의 三백년 유한을 풀어 귀신으로 하여금 그통한을 신원케 하였거늘 항차 양왕부자의 전수함과 무력왕의 전국하신사실이 밝기가 일월성신과 같은지라 거금 一천三백년간에 항설이 와전되어 사기가 되고 신어가 변하여 고적 이되며 국초에는 이정전(利貞傳)글이 강상을 무망케하고 국말에는 연자루(燕子樓)글이 국조를 기망하여 옥석을 분별할 수 없게하였다. 이러함으로 운배내가 부득이 상고하여 바로잡고자하는 마음으로 가락국기를 먼저 작성하여 천재에 부진하였던점을 완비하고자 하는바이다. 양왕의 원자를 왜 세종군이라고 하느냐? 세자라함은 종묘제사를 받드는 대종주가 된다는 말이니 제사를 주장함을 세자라고

하고 벼슬을 봉함을 군이라고 하니 아마 신라에서 봉한것같으나 알수가없다. 무종이라고함은 그선위한 차서로 무력을 존칭하는 말이다. 대개 세가보첩은 다 나라의 사기이니 마한 五四國과 변한一七國의 사적이 산과같으나 만국의 사기가 다만 천상에있을뿐 인간에 남아있음이 적으니 국사무전이 어찌 가락국에 한하여 그 진전이 없으리요.

제가보첩이 각각다르니 바로잡지 않으면 윤강을 상하게되므로 잘못된 족보는 불태워 버릴수밖에없다. 우리나라안에, 태왕의 후예로 천만 자손들이 다 왕에서 낳은 몸들이요, 신라, 고려, 조선 삼대에있어 나라의 간성이되고 지주가 된자들도 다왕의 사적이라고 아니할수없다.

태왕이 아들 열분을두었는데 七자는 무전하고 국조五백년에 자손이 번창하며 황자왕손의 제통이 소연하고 더욱이 각간(유신)의 업적은 참으로 장한바있다. 각간 이하로 세가가 중절된바 있으나 가락의 김이 사해에 번창하여 각각 중조를 내세우고 동방대성중 갑족이되었음은 다 선왕의 덕택이요 신라 고려때 문무장상 충효봉군 명현혈식이 각문중에서 잠영세습으로 계승되었음은 이루다 말할수없다. 그러나 발원됨이 이미 멀어서 고가대족들이 장차 침몰되어가니 내가 이에 잠간 위보가 발호될것을 우구하지 아니할수 없게되었다. 그래서 각 문중 원로들과 대동합보를 하기로 의논하고 옹희二년에 한성부에 종약소를 설립하고 三왕릉의 사적을 관습하니 파는다르나 근본은 하나여서 혈맥이 서로 통하니 이것이 존조 경종하는 중요목적이다.

죽보를 하지 않으면 집에 역사가 없게 되고 수족을 아니하면 대종의 뜻이 없는 것이라 종의가 결정됨에 재종씨 정평공용배로 하여금 각문중에 종장총회를 결성할것을 포고케 하였더니 용배씨가 불행이 별세하였다.

무술년에 대동합보를 내기로 결의하고 그후 十四년동안 종의는 더욱 치열하여 오늘에 그 완벽을 보게되니 실로 천무후무한 일이라고 하겠다.

교정이 장차 끝나게되니 서문을 나에게 쓰라고하니 몸은비록 늙었으나 감히 사양할수없어 쓰고자 하였으나 문장이 부족하여 어찌할수없다. 예로부터 씨족이

있으면 반드시 보게가 있어야함은 삼강오륜을 밝히고 소목을 차례로 하는데있다. 자고로 보소를 설치하고 임원을두어 박학다문한 사람으로 족보를 편찬케 함은 천하사람으로 하여금 인륜을 돈독케하며 귀천존비의 분별을 밝히며 천하의 규율을 제정하는것이다. 이에 반하면 벌이 있나니 그런고로 옛제후가 사기를 저주(呪呪)하여 말하기를 『그명맥이 타락되면 씨족을 망치게 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니 씨족망함을 밝히려면 실국과 탈작함과 그벌이 같은것이라』고 하였다.

김씨는 선왕의 후예로 온나라에 만연된자가 집집마다 보첩이있고 파족마다 족보가있어 크면 파계를 범하고 작으면 위보가되어 윤리를 손상시키고 풍속을 문란케하여 그죄가 마땅히 씨족을 망치는 화에 해당되니 대개 상제의 연원과 중제의 소목이 통관의 합벽에 맞지않나니 비록 한파의 종족이 혹 쇠미하며 후번성하나 모제하는일로 그친다면 종지를 분별할수없으니 이족보의 화를 가히 미루어 알수가있다. 대개 한씨족의 족보를 서로 간섭치 못한다면 그화가 장차 각

파에 미쳐서 조상을 잃어버리고 일가를 소홀히 여기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비록 대학자라 할지라도 족보를 편찬하여서 그 화를 막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신실한 족보를 편찬하여서 천하의 성론에 합당하며 천하의 소목을 바로잡아 그 화를 막고 오륜삼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이번 대동합보의 정안이다. 다행히 작문 종장 및 원로들이 불원천리하고 모여와서 여러해 차디찬 방에서 이 일을 같이하여 비로서 일가의 족보와 일문의 규정을 작성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여 정확히 산삭할 여유가 없었으니 어찌 감히 정미를 다 하였다고 하겠는가? 만일 전국내 각문중에서 이번에 잘못되었거나 수단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후세에 이 족보에 계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세재갑인 (一九一四)년

월

일

중증손

운배

계배근지

金寧君六世孫石城公諱永純派世譜再回

牧卿 普 到門
觀 孝 芬 震 孫

永 純

字熙之
官通訓大夫石城縣監
表石云漢城府判官

配淑人安東權氏
墓長湍郡長北面梅峴
里蛇洞先塋右岡第二
位巽坐合封有表石而
沒減無字十五代孫郡
守鍾應改撰并置位土

八 世

子 世 應

通德郎

配全義李氏 父崇文

九 世

子 堅 壽

官參奉

贈左承旨

配淑夫人東萊鄭氏无育
父蓬川君之翼祖蓬海
君震遠曾祖象哲外祖
扶餘徐敬忠

配淑夫人清州韓氏生三
子二女父文收使承亨

祖判官 贈泰贊士武
會祖贊成西平君文靖
公繼禧

配淑夫人驪興閔氏父部
將瑀祖郡守秀文會祖

縣令碩外祖固城金秀
茂

十 世

子 希 元

官通仕郎都事

配淑人慶州李氏父參議
春芳○官配按他譜錄
之更詳之

子 希 凱

配延日鄭氏父千齡祖護
軍克昌

十一 世

子 運 成

生父希聖子集卿 中
宗甲戌生 明宗丙午
筮仕官止僉正

配淑人宜寧南氏父水使
致亨○墓青陽郡雲谷
面茅谷里鹿門右麓平
岡西坐雙墳有表石

子 文 甫

生父希說武科歷宣傳
官止僉中樞
配淑人 李氏父憲胤
外祖承旨安東權紀

十二 世

子 鐸

7

子 銖

9

子 聖 和

10

女 權 大 榮

安東人父監察履中○
子權德昌縣監權德任
生員權德威權德應○
女尹重周海平人子就
徵○女尹遇徵海平人
父府使昌考○女韓振
清州人

子 聖 胤

11

子 希 說

配光州盧氏父佐祖玉崑
會祖部令孝民

子 文 甫

系仲
父后

子 明 甫

字憲明甲午生丙寅十
月二十日卒
配延安李氏戊戌生忌九
月七日父宜福○墓長
湍蛇洞先塋下合窆